

단편 영화 시나리오 <613호>

줄거리

- 고시원에 지내며 4년 째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우,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아끼던 공책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우는 옆방 613호를 의심하게 된다.

기획의도

사람마다 성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가 세운 기준에 빗대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식할 때가 있다. 가끔은 그런 행위로 인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기도 한다. 한 때,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생각한 적이 있다. 결국, 나중에서야 나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깨달았고,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순 없었을까?" 자각하였다.

시나리오에선 현우가 613호의 외모와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에 불편한 인식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자신이 갖고 있던 '공책'이 사라지자 613호부터 의심하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613호의 '공책'이 현우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현우는 그 공책을 보고 둘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나 불안한 감정 상태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미안함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 현우를 통해, 영화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닮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누군가를 의심하기 앞서 좀 더 '이해'하길 바라는 소망을 담고있다.

주요 캐릭터 설명

현우(612호) : 30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현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경찰 공무원 시험은 계속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격지심을 강하게 느낀다. 경찰인 아버지와 형, 특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정남(613호) : 33세, 수상한 외모로 인해 적게는 30대 후반, 많게는 40대로 보인다. 오랜 고시 생활로 지칠 때로 지친 인물. 의지할 곳은 오직 미신적인 것들 뿐, 현우처럼 시험을 그만 뒤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깊다.

현우 엄마 : 아버지의 비서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 아들을 응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안되는 공부 포기하고 작은 회사라도 취업)

고시원 주인 : 49 세 철부지 같은 인물, 한 마디로 귀차니즘이다. 고시원 관리 사무실 안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이며, 돈을 조금 아끼자고 가짜 cctv 를 다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 인물이다.

그 외 학생 1, 2, 3 / 스터디 형 / 시험관 / 강사 등이 있다.

#1. 시험장 / 낮

공책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험장, 앉아 있는 학생들 사이에 현우가 보인다.
시험치기 직전인지 공책을 집중해서 보는 현우.

감독관 : 자, 이제 공부하던 건 다 넣어주시고 신분증이랑 수험표만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민트색 공책을 덮는 현우, 심호흡을 하고는 공책을 가방에 넣는다. (공책 OS / C.U)
신분증이랑 수험표를 책상 위에 올리는 현우.

화면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현우의 수험표를 보여준다.

Title : 613호

#2. 고시원 / 밤

어두운 복도를 가로지르는 화면.(달리 인)
현우는 복도를 지나 방문으로 향한다. 문 앞에서 키를 꺼내는 현우.

중얼중얼중얼...
(어두운 베이스음이 시작됨)

맞은편 613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다 말고 돌아보는 현우.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인다.(기도하는 남자)
문틈 사이로 몸이 점점 기우는 현우. 갑자기, 소리가 멈추자 현우는 급하게 방안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잠그는 현우.

“철컹”

613호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눈동자가 보인다. (점점 빨라지는 베이스 음)
문을 닫는 남자.

“처-억” (동시에 화면 암전)

#3. 고시원 / 현우 방(612호) / 밤 (방안에 컴퓨터, 냉장고, 거울 없애야함. 문에 거울 붙여야함.)

암전된 화면에서 현우가 스텐드를 키자 책상 앞에 서있는 현우의 실루엣이 보인다.

가방을 책상 위에 올린 채 시험지를 꺼내는 현우, 가방을 내리고 자리에 앉는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노트북을 여는 현우.

타자 소리와 스크롤 소리가 들리며 다음과 같은 인서트가 나온다.

(인서트)

책상 벽엔 시험 일정표와 공부 시간표가 붙여져 있다.

책장엔 책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엔 d-day 표시가 보이는 달력과 가족 사진이 보인다.

사진 속 제복을 입은 아버지와 형, 그 옆을 지키는 어머니와 구석에 위치한 현우가 유독 돋보인다.

노트북 불빛에 얼굴이 비치는 현우, 시험지를 메기고 있다.

메기다 말고 펜을 놓더니 이마를 감싼 채 한 숨을 쉬는 현우의 뒷모습.

잠시 가만히 멈춰 있다가 천천히 펜을 들더니 공책에 무언가 쓰는 현우.

"그만할까..."

#4. 학원 강의실 / 낮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뒷모습과 옆모습이 번갈아 보인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현우, 강의 내용을 필기한다.

#5. 고시식당 / 낮 (한 컷으로 째 이어서 찍음)

3명의 학생 무리가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있다.

학생 1 : 하...다들 어떻게 됐어? 채점 해봤어?

학생 2 : 뭐 이번에도 틀린 것 같아요.

학생 3 : 저도 가망이 없네요

학생 2 : 어...근데, 형이 안보이네요.?

학생 3 : 연락을 계속해봤는데 안봤더라구요

학생 1 : 아 스...음...저번에 마지막 시험이라 하시긴 했는데, 설마 그만둔 건 아니겠지?

학생 2 : 그럼 저희 스터디는 어떡하죠? 그냥 세 명이서 하나요?

학생 3 : 음... 저 분 어때요? 여기 학원 올 때부터 계시던데, 경험 많으신 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학생 3은 건너편 테이블에 홀로 밥을 먹고있는 현우를 가리킨다.

학생 1 : 그럼 내가 한 번 여쭙보고 올게

학생 2,3은 학생 1을 보며 끄덕인다.

학생 1은 건너편 현우가 있는 테이블로 향한다.

학생 1 : 저...김문각 경찰학원 다니시죠?

밥을 먹던 현우는 학생 1이 나타나자 공책을 의자에 내려놓는다.

현우 : 네?...

학생 1 : 아, 저희가 스터디 구하고 있거든요..괜찮으시면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떠실까 해서요.

현우 : 아뇨, 괜찮아요.

학생 1 : 어..그래도 같이하면 좋을텐...

말이 끝나기 전에 식판을 들고 자리를 뜨는 현우.

당황한 기색의 학생 1은 현우를 바라보다 테이블에 있는 스터디원들에게 좌우로 고개를 흔든다.

#5. 오르막길 골목 / 밤

숨소리가 들린다.

걸어가는 현우의 뒷모습이 보인다. (미디움 샷)

경사가 높은 오르막길 위의 현우. (롱샷)

통화연결음이 들린다.

고시원 건물로 들어가는 현우. 화면은 현우를 보여주다가 틸트업 되어 고시원 간판을 보여준다.

#6. 고시원 복도 / 밤

띠리링, 띠리링, 계속되는 통화연결음. (NA : 나레이션)

현우 NA : 여보세요?

엄마 NA: 어 현우니? 왜 이렇게 통화가 안돼?

방안으로 들어가는 현우.

현우 NA : 학원이었어요.

엄마 NA : 그래, 시험은 어떻게 됐어?

현우 NA :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시 후, 옷을 갈아 입은 채 샤워 도구를 가지고 나온다.

엄마 NA : 그래...

엄마는 잠시 땀을 흘리다 다시 말한다.

엄마 NA : 혹시.. 힘들면 집에 들어와, 아빠한테는 잘 말할게...

현우 NA : 괜찮아요...아직 할 수 있어요..

#7. 샤워실 / 밤

엄마 NA : 너도 이제 서른이잖니...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 엄마의 목소리와 오버랩되는 물줄기 소리.(따갑게 들린다.)

엄마 NA : 그냥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는걸 아빠가 좋아하실 수도 있어...

현우 NA : 네...일단 다시 연락드릴게요.

샤워기 헤드가 잠기고 물이 똑똑 떨어진다.

샤워실에서 나오는 현우.

#8. 방문 앞 복도/ 밤

복도에서 방을 향해 걸어가는 현우, 사타구니를 긁고있는 613호를 발견한다. (밑에서 위로 쪽 훑는 샷)
방문을 열기 위해 키를 꽂는 613호, 키가 안 맞는지 여러 개의 키를 끼워본다.

이번엔 목을 긁으며 키를 꽂아보는 613호, 현우는 그 모습을 꺼려한다.

그러다 현우는 자신의 것과 똑같이 생긴 '민트색 공책'이 613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시선이 느껴졌는지 현우를 쳐다보는 613호

눈이 마주친 현우는 잠시 멈춰서 발걸음을 다시 재촉하여 방문 앞으로 향한다.

문을 열어 방안으로 들어가는 613호.

현우는 문을 열다가 613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613호의 문을 바라본다.

#9. 현우 방안(612호) / 밤

책상에 앉아 공부에 몰두 중인 현우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 어제처럼 옆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현우 시점에서 점점 크게 느껴지는 중얼거림(ASMR)
현우는 머리를 쥐어 뜯다가 한 숨 을 내뿜으며 공부하던 책을 덮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깔끔하게 나열된 책장을 확인하는 현우, 무언가 찾는 듯 보인다.
흰색 책장 문을 열어봐도, 가방을 뒤져봐도, 찾는 게 보이지 않는지 두리번대는 현우.
점점 상기되는 표정으로 뒤돌아 문을 쳐다본다.

#10. 고시원 관리자 사무실 / 낮

현우 : 제가 봤다니까요?

주인 아저씨 : 에이 그냥 비슷한 거겠지
아저씨는 휴대폰 게임을 하며 말한다.

현우 : 그럼 CCTV 돌려보면 되잖아요? 방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주인 아저씨 : 613호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스..읍..그래도 경찰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러겠어?

현우 : 경찰이요?

주인 아저씨 : 아 그러고 보니 학생도 경찰 준비 한다며? 에이 그럼 같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의심하면 안되지~(능청스럽게 말한다.)

현우 :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근데 CCTV 한 번 확인해보면 될걸 왜 계속 그러세요?
분명히 제 공책 들고있는 걸 봤다니까요?, 아님 그냥 경찰 부를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민망한 듯한 표정으로 말한다.

주인 아저씨 : 가짜야...

현우 : 네?

주인 아저씨 : 아이 그거 바꿔 꺼야 하는데, 계속 깜빡하네...아유 미안해 학생, 내가 금방 바꿔 놓을게.

현우 : 아, 하...(황당한듯 아저씨를 보다가 고개를 대각선 바닥으로 내리며 한 숨을 쉰다.)

사무실 앞 복도에 서서 대화를 듣고 있던 613호, 대화가 끝나자 앵글 밖으로 나간다.

#11. 'ㄱ' 모양의 고시원 옥상 / 낮

옥상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우, 담배를 핀다.

담배 연기를 내뿜는 현우.

“중얼중얼중얼”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현우는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현우. (왼쪽으로 팬)

소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현우의 뒷모습이 보인다. (미디엄 샷)

벽에서 빼꼼 빠져나오는 현우의 얼굴, 무언가 보고 눈이 커진다.

한 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 듯한 613호.

둥근 어항처럼 보이는 투명 유리 그릇엔 한자로 된 부적이 붙여져 있고 그 안에는 물이 가득하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방석에 무릎을 대고 절을 하는 613호.

낮선 상황에 놀라 자리를 피했는지, 벽에 숨어서 보던 현우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12. 방문 앞 복도 / 낮

계속 뒤를 살피며 자신의 방문 앞까지 온 현우,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613호 방문을 바라본다.

현우는 두리번거리다 잠시 CCTV에 시선이 머물더니 천천히 문고리에 다가간다.

문을 여는 현우.

#13. 613호 방안 / 복도 / 낮

서서히 벌어지는 문틈, 방문을 열다가 문과 의자가 부딪힌다.

의자에 올려져 있던 책들이 쏟아지고, 현우는 놀라 재빨리 방문을 닫는다.

암흑 속인 613호의 방에 완전히 들어간 현우. 책을 줍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켜다.

플래시를 키자 불빛은 책상 위의 수탉 모형을 비춘다. (수탉은 풍수적으로 “꿈을 이루어준다”는 의미)

놀라 뒷걸음 치다가 공책을 뒤꿈치로 차는 현우.

침대 밑에 공책이 들어간다.

주변을 살피는 현우, 벽에는 부적과 합격 전략 설명회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천장 옷걸이엔 아직 마르지 않은 수건이 걸려있다.

책상 주변엔 덕지덕지 붙어있는 포스트잇과 경찰 모형의 자동차, 그리고 수탉 모형이 보인다.

자신의 목적이 생각났는지 널부러져 있는 공책을 줍기 시작하는 현우.

옥상에서 고시원 복도로 내려온 613호.

현우는 잃어버린 '민트색 공책'을 찾기 위해 주운 공책과 책장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복도를 지나 613호 쪽으로 방향을 꺾는 발걸음.

발걸음 소리를 듣고 긴장하는 현우의 눈동자.(왼쪽을 보다가 눈동자만 오른쪽으로 획 돌아간다. E.C.U)

613호 시점으로 방문이 점점 가까워진다.

발걸음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자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피는 현우. 방황하기 시작한다.

방문을 여는 613호.

고시원 아저씨 : 어...학생 잠시 좀 볼 수 있을까?

고시원 아저씨는 평소보다 반쯤 줄인 목소리 크기로 613호를 부른다.

침대 옆 기둥 뒤에 숨어있는 현우, 열렸던 방문이 다시 닫힌다.

고시원 아저씨 : 별건 아니고..음..그래, 스..음 그게 학생들이 조금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네....

아저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현우, 조용히 613호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이때, 613호와 아저씨가 대화하는 걸 걸쳐서 현우가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여줌)

#14. 현우의 방안 / 낮

문에 기대어 숨을 돌리는 현우,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그 소리를 들은 현우는 긴장한 듯 소리가 들려오는 벽 쪽을 바라본다.

고시원 아저씨 : 그래, 고마워.

방문을 향하는 613호의 발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숨죽이는 현우.

문 앞에 멈춰선 613호, 아까와 달리 열려있는 자신의 방문을 확인한다.

아직까지 방문에 기대어 있는 현우.

“철컹”

613호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기대고 있던 등을 떼는 현우.

“똑.똑.똑”

예상치 못한 노크 소리에 다시 긴장하는 현우, 천천히 문을 연다.
문 앞에 서 있는 613호, 휴대폰을 건네며 말한다.

613호 : 이거 떨어져 있던데...

현우 : 아...가..감사합니다..

말을 더듬는 현우. 식은 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잡는다.

휴대폰은 짝 쥐고 놓지 않는 613호.

613호 : 별일 없죠?

현우 : 아..네...어..저 그럼..

천천히 휴대폰을 잡아 당겨 결국 받아내고는 문을 황급히 닫는 현우.
플래시가 켜져 있는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쉰다.

#15. 학원 강의실 / 낮

멍하니 강의실에 앉아 있는 현우가 보인다.
수업에 집중하는 다른 학생들과 책상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긴 현우.

#16. 학원 옥상 / 오후

대화중인 두 남자가 보인다.
(16선에서 스터디 형의 등만 나올 뿐 그 이외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학생 1 :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구.

스터디 형 : 아..사실 이번에 결과가 좀 그래서 포기했었어.

학생 1 : ...그럼 지금은 다시 공부하기로 하신 거예요?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스터디 형의 담배가 타들어가고 있다

스터디 형 : 아니..막상 그만두니까 딱히 할 게 없더라구 그래서 그냥 온거야.

아, 스터디는 미안하게 됐어

학생 1 : 아니에요..

담배 피우러 옥상에 올라온 현우, 학생 1을 지나친다.

현우를 발견한 학생 1.

학생 1 : 어..형 잠시만요..

스터디 형에게 말하고는 자리를 뜨는 학생 1, 흡연실 쪽 현우에게 다가간다.

학생 1 : 안녕하세요. 저번에 봤었는데 저 기억하시죠?

현우는 피우려던 담배를 내리면서 긴가민가한 표정을 짓는다.

학생 1 : 이거 식당에 두고 가셨더라구요. 만나면 드리려고 챙겨 왔어요. 이거..

가방에서 '민트색 공책'을 꺼내 현우에게 전달하는 학생 1.

현우는 공책을 받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학생 1을 쳐다본다.

스터디 형의 O.S 시점 샷으로 현우와 학생 1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화면에서 사라지는 스터디 형

#17. 고시원 복도 / 밤

한 손에 컵라면을 들고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현우의 뒷모습.

"대학 · 취준생, 37.4% 공무원 시험 준비중, 하지만 현실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는 현우.

휴대폰을 보며 계속해서 부엌으로 걸어가는 현우, 부엌에 누군가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인다.

고개를 드는 현우.

부엌에 있는 613호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오른쪽 통로로 빠진다.

한 숨을 돌리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현우.

613호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현우는 식탁에서 라면을 뜯어 스프를 뿌리고 있다.

613호 : 공책은 찾으셨어요?

현우 : 네?

613호 : 공책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현우 : ...

613호 : 그래도 덕분에 아저씨가 CCTV를 바꿔서 다행이에요.

현우 : 그..그게 무슨 소리죠?

613호 : 때마침 CCTV를 바꿔서 녹화가 됐나봐요...

컵라면에 정수기 뜨거운 물을 붓는 현우.

현우 : 그래서 보셨어요? 누군지?..

점점 차오르는 뜨거운 물.

613호 : 근데 이게 오래된 거라 상태가 영...그래도 녹화본이 복구 될 수도 있다니 기다려 봐야죠.

물에 가득 잠긴 라면사리.

현우 : 아...네...

컵라면 뚜껑을 덮는 현우.

613호 : 근데 괜찮아요. 이미 마음 먹었거든요..

현우 : ...

613호를 바라보는 현우, 잠시 동안의 정적 후 조용히 부엌을 나선다...

현우는 카메라 화면 밖으로 나가고, 부엌에 혼자 남겨진 613호의 모습만 화면에 보인다.

새벽에 뜬 달. (인서트)

#18. 부엌 / 밤

싱크대 밑 서랍을 여는 누군가. 칼이 보인다.

#19. 현우의 방안

침대 위 잠자고 있는 현우의 모습.(발에서 얼굴 쪽으로 훑는다.)

문고리가 살짝 움직인다.

현우 : 으으흠..(깨지 않고 뒤척이고 있다.)

잠시 조용하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문고리.

일정한 리듬의 어두운 베이스가 들린다.

현우는 실눈을 조금씩 뜨더니 움직이는 문고리를 보고 놀라 긴장한 목소리로 말한다.

현우 : 누...누구세요?..

조용해진 문고리. 현우는 일어나 문고리 서서히 다가간다.

점점 빨라지는 베이스 음.

현우 시점으로 보이는 문고리와 떨리는 손.

문을 여는 현우, 텅 빈 복도에 한 발 나가서 이리저리 주변을 살핀다.

소리는 고조되다가 사라진다.

CCTV 위치에서 보이는 현우의 모습. (H.A)

조용히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

613호의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현우의 모습.

지이잉..

현우가 들어가려고 등을 보이자 칼을 든 613호가 방문에서 뛰쳐나와 현우를 덮친다.

지이잉!!!!

으으악! 숨을 헐떡이며 악몽에서 깨어난 현우. 아직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이리저리 살핀다.

밖에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20. 613호실이 보이는 복도 / 낮

613호 방 안에서 쪼그린 채 침대 밑에 무언가를 꺼내는 고시원 아저씨.

'민트색 공책'을 침대 밑에서 꺼내는 아저씨, 묻은 먼지를 털면서 일어난다.

현우 : 아저씨..뭐하세요?

고시원 아저씨 : 응? 청소하지..

현우 : 원래 있던 사람은요?

고시원 아저씨 : 나갔지 뭐

현우 : 네?

고시원 아저씨 : 아~ 이제 뭐 할 만큼 한 거겠지.

현우 :

고시원 아저씨 : 이거 저번에 학생이 말한 거 맞지?, 자, 에휴 진짜 학생 말이 맞았나 보네..

공책을 현우에게 주고 자리를 뜨는 고시원 아저씨

현우는 공책을 쳐다보다 아저씨에게 말한다.

현우 : 저 혹시, 여기 있던 사람이 뭘 찾아달라고 하진 않았나요?

고시원 아저씨 : 응? 아니? 그런 적 없는데?

현우 : 아...네...

고개를 가우뚱하며 돌아가는 고시원 아저씨.

현우는 방안으로 들어온다.

문을 닫자 문에 붙어있는 거울이 현우의 얼굴을 비춘다.

천천히 공책을 펼쳐보는 현우.

공책을 둘러보다 흰색 종이를 발견한다.

흰색 종이를 꺼내는 현우, 그렇지만 현우의 시선은 그대로 공책에 머물러 있다.

“이제 뭐하지..”

613호의 '민트색 공책'에 쓰여있는 글귀.

현우는 흰색 종이를 펼쳐본다.

2020 경찰공무원 수험표

박정민

증명사진

화면은 수험표를 비춘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현우, 거울 시점으로 현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울컥 올라온 현우의 표정.

#22. 613호 문 앞

화면은 현우의 얼굴을 줌인 하다가 거울을 투과하여 613호 문을 비추며 끝이 난다.

----- 끝 -----